앙드레 말로 硏究*

—이탈·집착의 對應構造와 〈宿命의 豫示〉—

金 鵬 九
(佛文科 敎授)

〈目 次〉

序 言
Ⅰ. 이탈·집착의 대응구조
A. 이탈 détachements
1. 失鄕·浮動人間群
2. 血緣·가족관계
3. 男女관계의 파탄과 에로티슴
4. 反社會·反世俗의 고립인간群
B. 집착 attachements
1. 家門·王國·黨
2. 男兒의 結盟과 信義
3. 친구관계와 同志愛
4. 예술과 혁명
C. 작가 자신의 傳記的 사실과의 부합—〈생애·작품〉의 대응구조
1. 실향·부동인간↔가문의식과 黨
2. 혈연·가족관계의 파탄↔男兒의 結盟과 信義
3. 부정적 비극적 男女關係↔친구관계와 同志愛
4. 反社會·反世俗↔예술·혁명·조국과 유럽文化
Ⅱ. 대응구조의 형태적 특질과 의미
1. 형태적 특질
2. 〈생애·작품〉을 일관하는 대응구조의 의미 해독
Ⅲ. 大回歸와 逆이탈의 드라마
1. 조국·유럽文化 옹호(文化史的 反코뮤니슴)
2. 同胞에의 귀속
3. 코뮤니슴 이탈의 경험적 대응구조
Ⅳ. 말로의 〈숙명〉과 神秘
1. 숙명의 수락과 〈작품을 통한 豫示 préfiguration〉 현상
2. 回歸의 例外 : 혈연·가족관계
3. 최후의 숙명과 신비 :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와 외톨의 죽음
4. 말로 〈생애—작품〉의 특질
結語—예술과 신비

Ⅳ. 말로의 宿命과 神秘

비슷한 말이지만, 〈운명(destin)〉이란 말이 인간의 지능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누구의 의사나 의지와도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앞으로 반드시 실현될 초인간적 불변의 원

* 본 연구는 위 목차와 같은 전체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그중 序言과 I.A. 이탈 détachements은 1981년 12월에 발간된 「人文論叢」 제7집에 게재되었고, I.B. 집착 attachements에서 Ⅱ. 대응 구조의 형태적 특질과 의미 까지는 1984년 7월에 발간된 「人文論叢」 제12집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Ⅲ. 大回歸와 逆이탈의 드라마는 불어불문학 연구 제20집(한국불어불문학회, 85년 7월 발간)에 「앙드레 말로의 大回歸와 逆離脫—傳記硏究」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여기서는 이 연구의 나머지 부분(고딕체 인쇄부분)을 게재한다.

리같은 것을 뜻한다면, 〈숙명 destinée〉은 그 원리로하여 결과(실현)되는, 또는 이미 실현된 일체를 가리킨다고 일단 풀이할 수 있겠다(실제로는 번번이 구별않고 사용됨).

우리는 위에서 말로 전반기의 이탈이 죽음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보다 깊이는 운명에 대한 반항이며, 그 〈숙명〉化의 거부였음을 밝혀 두었다. 이미 실현된, 조국·혈연·가족관계·사회환경과, 일부는 실현되었고 앞으로 되풀이될 수도 있는 사랑등에서의 이탈이 그것이다.

그런데 후반기에 이르자, 일대전환을 획하여 이탈한 곳으로 되돌아 오는 역전현상을 보았다. 그 자체가 그의 〈운명〉의 소치일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기서 말로의 기현상이 부산물처럼(아니, 그것이 바로 말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를 일이지만) 떠오른다.

우선, 운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운명〉의 첫째 특성이 그의 작품에 의하여 깨지는 기현상이다. 흔히 말로 評家들이 지적하는 바, 그의 행동과 판단이 시대를 앞지른다는 역사적 〈예언자〉의 일면을 뜻하는 정도가 아니다. 저 자신이 겪게될(숙명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지능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의식치 못한 채(실천 여부에 관해서는) 작품을 통하여 미리 原型을 그려놓고 있다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추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대 회귀를 말했거니와, 그는 과연 완전히 돌아왔는가? 아니다, 온 생애의 결산을 맺을 때, 〈이탈〉〈집착〉의 대응구조에서 단 한 가지 빈 자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對他관계의 구조적 고찰과 작가자신의 傳記的 사실과의 照合(〈생애·작품〉 재구성)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들, 눈에 띄지도 않았을 한 자리다—즉, 그 자신의 〈혈연·가족관계(가정)〉가 그것이다.

이 단 하나의 빈 자리야말로 그 앞의 작품을 통한 〈宿命의 豫示〉중에도 최후의 가장 불가사의한 하나의 신비라 할 만하다.

1. 숙명의 수락과 작품을 통한 豫示(préfigurations)

Ⅲ장에서 본 그의 〈회귀〉는 결과적으로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아직 운명의 초자연의 연줄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후반기의 60년대 이후부터는 운명을 의식할 뿐 아니라, 그 불가사의한 연줄의 힘까지도 인정하고 그 신비를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a) 〈운명〉의 인식 : 위에서 인용한(Ⅲ장 2.) 장 물랭의 추도사에서 그의 체포 경위를 간략히 진술한 약 30줄의 글[56]에서 〈운명〉이란 어휘가 3번이나 되풀이 되며, 「반회고록」과 「過客 Hôtes de passage」 등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어휘들 중의 하나가 된다.

앞서 〈조국에의 회귀〉를 말할 때 〈피로써 알자스와 맺어〉 졌음을 인정하는 글을 인용했다.(Ⅲ장 2.) 그는 알자스—로렌느와의 숙명적인 맺음을 「반회고록」에서도 거듭 강조한다.

56) Oraisons funèbres pp. 132-3.

청년시절 兵役복무시에 알자스의 수도 스트라스부우르의 병사에서 輕騎兵으로 5, 6주간 복무한 적이 있는 인연을 시발점으로, 레지스탕스 시기에는 알자스—로렌느부대와 가까이 지내다가, 프랑스군이 정식 연합군의 일부로 반격작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는 〈알자스—로렌느旅團〉의 지휘관(여단장, 대령)에 임명된다.

그런데 알자스로 진격 중에 둘째 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이 지방도시의 〈알자스—로렌느〉街에 위치했었다. 그후 정식결혼한 셋째부인은 툴루즈 Toulouse市의 〈알자스—로렌느〉街에 살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가 인생의 첫출발로 佛印을 향해 첫 航海를 할 때, 탄 배가 〈앙코르〉號(앙코르는 바로 그가 노리던 세계 굴지의 大寺院의 소재지)였는데, 45년 후, 그가 아세아를 향한 항해에 승선한 배가 〈캄보디아〉호이며, 이는 바로 그 선실에서 이 글(「반회고록」)을 쓰고 있노라고 밝힌다.[57]

b) 불가사의한 초자연적 예고와 수락 : 인연의 연줄의 불가사의한 예고를 자신의 체험으로 例示한다—〈나는 가장 날카롭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부딪쳤다〉고 1944년 알자스 전선에 있을 때, 처칠수상이 전선을 시찰하는 중 말로가 소속된 제1군단에서 會食을 하는 날의 전날 밤, 새벽 1시에 전령이 그 회식에 관한 군단본부의 지시를 가지고 그를 깨웠다. 동시에 꾸던 꿈도 중단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워서(방금 꾸던 중에 깨어났으니, 더욱 그럴 터이지만)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다.

밤색 머리의 여인이 고개를 기울이며 무척 다정스럽게 그를 바라본다. 그녀에게서 전에 본 일이 없는 머리 모양이며—머리에 리본을 두르고 한복판에서 가르마를 가른—반쯤 밖에 닮지 않았지만 그의 季嫂임이 분명하다. 보통 꿈에서 경험하는 목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시에 듣는 소리도 아닌 엄숙하고도 약간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아주 또렷이 발음한다.

「자 이제 당신의 세번째 아내예요.」

다음 날 7시에 잠이 깨자 전보가 배달된다—부인이 위독하니 화급히 오라는 내용이다. 급거 달려가 보니 툴 Tulle邑(나찌에게 사살된 알자스 출신의 항독 지하 투사들의 새벽 비밀 매장이 있은 마을 근처) 〈알자스—로렌느〉街의 병원에 아내가 시체로 기다리더라는 것이다(열차 사고로 다리가 잘린 부인의 마지막 부탁이, 〈그 분이 올터이니까 날 예전처럼 보도록 화장을 잘 부탁해요.〉라고)[58]

항독지하투쟁중 나찌에게 체포 납치된 그의 동생은 처형되었고, 후에 그 부인과 正式결혼(클라라이후 두번째이며 마지막 정식결혼)을 한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운명의 예고를 믿는지 여부를 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학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고대의 한 장면을 재현하여 구체적으로

57) Anti. pp. 18-9.
58) Hôtes de passage pp. 142-4.

묘사하는 見者(voyant)의 속기록 낭독을 듣고 그의 경험을 회상한 것임.) 하여간 그의 계수와의 결혼은 결과적으로 그 초자연의 告示를 예언화하여 숙명으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심지어 불교에 조예가 깊은 그는 〈前生〉 문제도 아주 도외시하지 않은 듯하다. 「반회고록」 권두의 銘記로 불교법화의 일절을 인용하고 있다.

「코끼리는 모든 동물 중에도 가장 슬기로워 자기 **前生**(복수—역주)을 회상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리하여 그는 오랫동안 전생들에 관하여 명상하며, 조용히 서 있는 것이다.」

c) 作品에 나타난 숙명의 豫示 : 흔히 그의 예언자적 성격을 말할 때, 역사적 흐름에 대한 그의 비상한 통찰력과 항상 시류를 앞지른 그의 이념적 편력을 가리킨다—유럽 인텔리의 코뮤니슴 조류를 훨씬 앞지른 동반자로서의 행동, 그리고 이탈, 50년대에야 떠들썩해진 東南亞 특히 中共에 대한 관심을 30년 앞지른 그의 편력과 관심 환기등. 한편 코뮤니슴이 러시아(中國도 마찬가지)가 세계적인 영광과 힘을 전취하려는 오랜 러시아(中國) 민족성과 그 문화의 숙원 성취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간접적으로 유럽문화권에는 〈유로코뮤니슴〉 출현의 필연성을 예언한 셈이 된다. 작품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것으로는 20년대에 벌써 불링 인도지나의 독립과 (「왕도의 길」), 中共의 승리를 (「정복자」) 예언하고 있다. 시류를 멀리 앞지른 집념과 취향—20대 청년이 그토록 〈죽음〉과 〈늙음〉과 인생의 〈허망〉 (전후에 유행어가 된 absurdité—「왕도의 길」), 사회의 〈허망〉 (「정복자」), 자주 나타나는 〈실존적 상황〉의 묘사 (「왕도의 길」, 「인간조건」), 60대에 비로소 시류를 타게 된 소위 〈에로티슴의 형이상학〉 (3작품 공통) 등.

그러나 불가사의라고 표현할만큼 묘한 것은 작품에 강조된 것이, 마치 〈숙명의 예시〉 인양 그의 일신상에 또는 신변에 실제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그는 a)項에서 인용한 바, 그 자신이 경험한 〈알자스—로렌느〉와의 불가사의한 인연의 연줄을 「반회고록」에서 열거한 후에, 작가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작품속에 미리 나타나는 경우, 즉 〈숙명의 豫示〉의 실례 몇 가지를 들고 있다.[59] 그러나 그가 예를 든 V. 위고가 희곡 「마리옹 드롬 Marion Delorme」을 쓴 후에 여배우 줄리엣트를 만났다든가, 니체가 「즐거운 지식」 마지막 줄을 〈여기서 비극은 시작된다〉로 끝맺고 몇 달 후 루 살로메를 만나 비극적 사랑에 빠졌다든가하는 사랑의 예는 너무나 흔한 일이고 단순한 우연의 부합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선, 사랑에 빠진다는 일은 유럽인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랑이 주축이 된 작품도 너무 흔한 일이다. 빅토르 위고의 경우 작품에서는 실제 경험처럼 처음부터 여배우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도피 중에 생활이 궁하여 부득이 여배우가 되는 것이어서 우연의 부합으로도 묘미가 훨씬 감소된다.

그런데 말로의 경우는 전혀 뜻밖의 일, 도저히 그 가능성을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던

59) Anti. p. 19.

일들이 실현되고, 일치의 요소들도 단일적이 아니고 복합적이어서 그만큼 단순한 우연의 일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첫째, 「왕도의 길」에서 그렇게 강조된 男兒끼리의 結盟—두말할 필요도 없이 15년 후에 드골과의 그것으로 실현된다. 그는 드골의 문화상이라는 한직을 맡고도 클로드처럼 계속 고대예술에 골몰하여 미술론 집필에 전력을 기울였다. 페르강의 나의 〈왕국〉건설에의 집착에 대하여 현실의 드골은 프랑스공화국 재건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다.

둘째, 그 자신도 지적한 바, 고문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 유럽인의 관심 밖인 태평한 시대에, 여러 번 세 작품에 걸쳐 언급 또는 묘사되었는데, 역시 나찌군에 붙잡혀 자기 발등에 떨어진 격이 되었고, 동생을 비롯하여 많은 동지들이 고문·학살당하는 참극을 겪게된다. 그리고 「인간조건」의 복수의 고문자 페니히는 독일인이며, 국민당 경찰 책임자이니 나찌의 게슈타포의 原型인 셈이다.

셋째 역시 유럽 인텔리들에게 실제 테러행위가 관심 밖이던 때에 두 작품에 걸쳐 등장시켰었는데, 그 자신이 열광적 알제리 수호자인 동족의 저격을 받고 드골 역시 몇 차례 폭탄테러를 간신히 모면하는 일이 일어난다(마치 첸의 장개석 장군에 대한 그것처럼). 지금은 흡사 테로리즘의 시대가 된 느낌까지 든다.

네째, 역시 그 자신이 지적한 바, 「알텐부르의 胡桃나무들」에서 동케르크에 거주하던 플라망 사람인 조부를 〈알자스人〉으로 바꾸고 이름을 베르제 Berger라 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1914년에 독일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人(당시 알자스는 독일령)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베르제라는 이름이 철자는 그대로 둔채 발음에 따라 독일 人名도 되고 프랑스 人名도 된다는 편리한 점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레지스탕스 시절 말로를 부하들은 베르제대령이라 불렀고, 그 이후 앞에서 말한 알자스와의 수많은 불가사의한 인연의 연줄이 얽혀진다.

끝으로 가장 불가사의하며 생애 최대 최후의 신비가 남는다.

2. 〈회귀〉의 例外 : 〈혈연·가족관계〉

위에서 그의 〈대타관계〉의 대응구조중 유일한 빈 자리가 그 자신의 〈혈연·가족관계〉라고 미리 지적했다. 아니 후반기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차례 단란한 가정을 꾸민 시기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교통사고 혹은 病死로 파괴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숙명의 실현을 재촉하듯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신경증으로 가정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a) 세차례의 결혼과 파탄 : 첫번 결혼상대 클라라와의 관계는 이미 언급했다.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법적수속을 거부하여 앙갚음을 하고도, 계속 회고록을 통하여, 그를 비판하며 그가 죽을때까지 용서치 않는다. 한창 젊은 시절 배짱이 맞던 총명한 악발이 아가씨의 집념이 나이 들자 그의 고질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長女 플로랑스는 실

질적인 이혼(별거)과 함께 모친을 따라 나갔고, 알제리 문제의 갈등 중에는 사르트르파의 작가들과 함께 알제리 주둔군 兵士들에게 脫營을 선동하는 성명서에 서명한다. (말로도 내뱉듯이 〈무슨 작품으로 작가 들에 끼었지?〉하고 개탄했다. 역시 그들의 교활한 手法에 말려든 것이다). 말로에게는 가슴아픈 일격이었으리라. 후에 다시 화해는 하지만, 이미 한 가족은 아니다. 두번째는 그가 레지스탕스 시기에 투쟁무대였던 코레즈 지방(위의 Tulle邑 소재지)에서 만난 어인(Josette Clotis)이며, 전시이기도 하지만 아직 법적 이혼이 안되어 있어, 혼외 결합으로 두 아들까지 두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기차에 깔려 다리가 절단되어 사망하고, 동시에 위에서 말한 〈세째 아내〉의 현몽의 기현상이 일어난다. 그의 이복동생 둘(Roland, Claude)중에도 가장 그가 사랑하던 롤랑의 아내, 마들렌느 Madelaine이다. 동생 둘이 다 나찌군에 체포되어 죽지만 1945년 롤랑이 流刑中에 死亡을 (필경 처형)했음을 확인하고 곧 母子를 맞아들였고, 47년 法的으로 정식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

필경 처음으로 조용한 가정과 집필의 안정된 생활을 누린 시기일 것이다. 롤랑의 유복자 즉 조카 알랭 Alain을 의붓아들로 삼고, 친아들 둘—고티에 Gautier, 뱅상 Vincent—다음의 막내 아들로 맞는다. 그런데 1961년 친아들 둘이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차 시골에 내려가 공부하다가 上京길에 자동차사고로 한꺼번에 횡사를 한다. 이때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66년에 그 아름답고 헌신적이던 세째 아내와 헤어짐으로써 또 다시 가정을 잃고, 홀홀단신으로 돌아간다.

그 잇달은 교통사고의 죽음, 그리고 끝내 외톨로 돌아가는 과정(사실상 부인을 쫓아내보내는 것이다)이 아무래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다.

b) 家門의식의 성취와 가정의 파괴 : 여기서 첫째 의문이 일어난다. 어째서 하필이면 계수와 결혼했을까? 동생이 죽은 이상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다. 서양인들 간에는 그리 흉이 될 일은 아닌 듯하나, 그래도 친지간에 석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의붓아들 알랭도 철 들면서부터 혹시 친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는 의문에 시달린 일을 고백한다. 하여간 못할 것도 없지만 꼭 결혼할 이유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꿈의 예고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예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지만, 그가 고백하지 않았던들 아무도 모를 그야말로 꿈이야기다. (다만 전처의 사망과 시간의 부합이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전부터 좋아했었으니까—그렇다면 천착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말로도, 아우 롤랑도 나찌 점령하에 다 같이 신혼초기이며, 마들렌느는 유복자를 잉태한 채, 남편을 보내고 고향(Toulouse)에 있었으니, 좋아하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다. 과연 현재 전하는 사진 몇 장을 보아도 말로와 결혼한 때는 물론 15년 후에도 여전히 젊고 뛰어난 미녀임이 확실하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조부를 모델로 삼은 바넥그老人의 집요한 〈가문의식〉을 상기하자. 말로 자신도 40세에 접어들며 새삼 가문의식이 (혹은 무의식 중에)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잡작케 하는 증거로 「알텐부르의 호도나무들」에서 그리고 「반회고록」에서 거듭 종조부들과 부친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도 조부의 그에 끼친 심리적 영향과 引力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에 이 점도 결과적으로는 〈가문의식〉의 성취로 작품을 통한 가장 신비로운 像示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다음 실례로 매듭지어진다. 가장 신비롭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이루어지는데는 우발사건인 두 친아들의 동시 횡사가 그런 결과로 끝나도록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에 발생한 그 우발사건 때문에 오직 조카와 계수를 각각 자기의 法廷妻子로 사전에 맞음으로하여 결국 앙드레 말로 가문이 존속될 수 있는 결과로 끝난 것이다. 둘째 그 부인을 다시 찾아낸 후에도 따로 하숙을 정한 의붓아들 알랭만은 무척 소중히 대했고 매주 한번씩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가 하면 「反회고록」이 간행되자 그 인세로 아파트를 사주었고 후에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되자 미국판의 판권 인세를 그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꽤 여유있는 외국생활을 하게 배려해준다.

결국 그는 말로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가문의 후계자가 된 것이다. 그것도 아우의 아들의 義父가 됨으로써 혈연을 한데 몰아 명실상부한 〈말로 가문〉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남긴 것이다. 숙명이건 우연이건 간에 정식결혼이 아닌 제2夫人 소생의 친 아들 둘이 한꺼번에 횡사한 사실과 아울러 정식결혼한 마들렌느와는 헤어지고도 죽는 날까지 10년간(만년에 다른 女人과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法的으로는 유일한 正式夫人의 자리에 둠으로써 알랭母子로 하여금 자기 가문의 상속자로 삼은 것이다.

세째 과연 그 알랭은 단지 그의 가문의 법적인 상속자로 끝나는 이상의 특기할만한 큰 구실을 한다. 말로 사망 1년 후 그의 회고록 「불로뉴의 마로니에들 Les marronniers de Boulogne」를 간행(Plon, 1967)한다. 2살부터 한 집에서 23년간을 같이하며 자랐고, 그 후 죽는 날까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유일한 아들의 증언들이 담겨 있어, 그의 후반생의 행적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던 그의 내밀한 사생활의 유일한 목격자의 기록을 남긴 것이다 (本稿 후반의 유일한 길잡이로 많은 시사와 확증을 준 것도 이 책이다).

그 압축된 표현과 발랄한 文體마저 앙드레 말로의 체취를 느끼게 하여, 과연 그의 20년간의 무언중의 영향과 훈도를 느끼게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며, 본직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네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항목의 주제 〈가문 의식의 성취〉라는 假定에 알랭의 증언은 거의 확증을 제공해 주는 듯하다. 그 회고록의 제목 「불로뉴의 마로니에들」에 유의하자. 불로뉴는 그가 자란 말로 저택의 소재지이고, 마로니에는 거기 모인 가족들을 뜻한다. 바로 말로가 자기 조부를 중심으로한 가문의 회고를 적은 「알텐부르의 호도나무들」과 운을 맞춘 것이다. 알랭도 그 〈가문의식〉이 부지간에 떠올랐음인지, 회고록 〈머리말〉에서, 말로 사망 2개월 후에 자기 아들이 출생했으며, 말로도 그 손자의 잉태소식을 알고 있었음을 밝혀준다.

이렇게 많은 분가사의한 곡절을 겪고 가문을 겨우 유지한 그가 어째서 가정만은 기어코 파괴해야만 했던가? 어째서 한사코 외톨이 되고야 말았던가? 마지막 수수께끼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보자.

3. 최후의 숙명과 신비 :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와 외톨의 죽음

아킬레스는 발뒤꿈치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밖의 온몸이 〈상처를 입지 않는 invulnérable〉용사였다는 신화가 있다. 말로의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형용사이다. 육체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떤 위기에도 또는 어떤 충격 앞에서도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끄떡없는 철석같은 성격을 형용한다. 그도 저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놀라움(필경 그의 용기에 대한)에 대하여 그가 대답한 말이다. —〈육체적 용기는 상처입지 않는다는 느낌(sentiment d'invulnérabilité)으로 북돋워진다〉[60]고 그리고 자기가 겪은 많은 실례들을 든다. —스페인 내전 참전중 그 古物 비행기를 타고도 적의 집중 포화 속에서, 2차 대전중 전차병으로 앞의 전차가 불길을 토해도, 결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없고, 나찌 수용소에서 총살집행 분대가 자기를 끌어내어 〈어깨총〉까지 하고 자기를 겨누었을 때도 정말 사격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박격포탄이 비오듯하며 마치 자기를 찾아 뒤지듯이 다가오며 떨어지고, 마침내 파편에 자기 혁대까지 끊겨도, 다음 유탄이 자기를 맞히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등.

그런데 그 말로가 가정의 조용한 분위기에 감싸이면 오히려 상처투성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랭은 거의 폭로에 가깝도록 증언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혈연간의 문제에는 그저 속수무책일 뿐더러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쩔쩔매는 것이다.

a) 기사도 結盟의 맹장과 가정 안의 弱卒 : 우리는 I 장의 〈이탈〉과 〈집착〉의 대응구조를 말하면서 〈혈연·가족관계〉의 이탈을 벌충하는 심리적 보상욕구의 발현으로 〈남아간의 결맹〉을 맞세웠다. 알랭은 마치 우리 문제 파악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 시사를 제공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실은 알랭의 그 귀중한 자료를 入手하기 1년 전부터 강의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니까), 한 페이지에 그 項目을 두 번이나 가지런히 제공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말로와 자살한 그의 부친과 그의 아들, 이렇게 3代를 연결하는 상호관계를 말하고, 이어 그 연장선 위에 위치하는 〈드 골—말로〉관계가 그 〈상징적 보상(벌충)〉이며, 〈그의 자발적인 養子결연〉이라고까지 꼬집어 표현해 주고 있다.

말로 자신이 표현한대로, 자살한 부친을 평소에도 〈그분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점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로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그런 현상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사이에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모르고〉있었다고 알랭은 주석을 붙인다. 그리고 다음 말로가 부친에 관해서 한 말 〈그분에게 안녕히하고 작별인사를 할

60) La Corde et les souris (ch. VI Lazare). p. 537.

때면,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 지를 결코 믿을 수가 없었다〉. 이 표현은 뱅쌍(문제아인 둘째 아들)의 입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들은 적이 있다고 알랭은 덧붙인다. 곧 이어 그의 드골과의 만남을 이렇게 풀이한다.

「그의 드골과의 만남은 장군의 가장 멋진 收復(전에는 〈좌익의 등대를 상징하던〉 말로를 민족진영으로 끌어들였으니까—역주)이지만 나는 그 만남을 나의 조부(말로의 부친—역주)를 가족들이 全的으로 버린 데(집을 나가 혼자 따돌다가 자살—역주) 대한 深海같이 깊은 뜻의 상징적 보상으로 보는 바이다.—그의 자발적인 양자 결연(son adoption spontanée)덕분으로 〈프랑스 최고 인물〉이자 그의 年長에 의해 주어진 보상이다.」[61]

그리고 드골의 그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말로의 코뮤니즘과의 영구 결별은 그의 2중의 和合과 일치된다면서, 하나는 〈선택된 부친(드골)의 後見的 모습〉과, 또 하나는 〈역사〉의 진행과의 和合이라고 부연한다. 만약 그가 전후에도 그대로 동반자 구실을 계속했더라면, 좌익의 영웅이자 작가로서의 명성도 충천했으리라는 점을 들어 이때의 말로의 용기를 지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말로가 나찌즘의 팽배에 대항하여 공동전선을 펴야할 급선무 때문에 이때껏 오랫동안 지속된 옛 동지 코뮤니스트들과 이번에는 거꾸로 결판을 내야하는 일대 투쟁에 열광적으로 뛰어든 것도, 후에 그가 망데스의 능력과 정치 노선에 찬동하면서도 협력을 단념한 것도 드골과의 結盟때문임을 회상하며, 이 결맹의 성격을 명쾌하게 정의한다.

「장군에게 그는 거의 父子간의 주종관계(allégeance quasi filiale)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 집착(attache 맺음)은 하도 깊이 맺어서서 (그 밖의) 인체의 정치적 입장 정립을 억제했었다.」[62]

이 〈거의 父子간의 주종관계 allégeance〉란 표현이야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압축한 표현이다. 직접적인 선천적 혈연관계(숙명)대신에 공통의 성격, 의지와 꿈(이상)으로 맺어진 준부자 관계, 그리고 〈주종관계〉—바로 봉건시대에 기사와 군주와의 사이에 기사도의 계율로서 맺어지는 지엄한 信義의 結盟을 뜻하는 말이다. 그밖에도 한평생에 〈그가 고작 둘째(그 다음가는 人物—역주)가 되기를 수락한 유일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착, 그에 의한 매혹(홀림 fascination)을 여러번 언급하고 있다.

그가 가장 침체기에 빠지고, 신경성의 병증이 심해 조만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악화되어 있을 때다. 드골의 임기가 끝나 재 출마에 동의하자, 이때껏 의기소침했던 그가 아연 분기하여 戰後 드골 진영의 사상적 수문장으로 〈죠레스 이후의 대웅변가〉였던 그 모습으로 일변한다. 알랭은 〈호랑이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았다〉[63]고 표현한다. 그 기사도의 결맹이 유일한 의지와 힘의 원천으로(아마도 최후의) 남아 있던 것이다.

61) Alain Malraux, Les Marronniers de Boulogne, Plen, 1978. p. 94.
62) ibid. p. 58.
63) ibid. p. 193.

그런데 이 맹장이 혈연의 연줄에 얽매이면 그만 형편없는 弱卒로 변하는 것이다. 알랭은 어린시절부터 말로가 어쩌다 공일날 애들 상대를 해 줄 때면, 친아들들과 자기를 대하는 미묘한 심리적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간파했던 것이다. 세속적으로 흔히 있는 그런 차별과는 정반대로, 친아들보다 자기를 더욱 만족시켜준다는 것이다. 즉 같은 혈연이며 어린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아들 보다는 더욱 알랭에 대하여 언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의 이유를 그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즉 한쪽도 혈연이기는 하지만 자기 의사로 채택한 아들인데 반하여, 친 父子간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행동도 항상 〈실존적 色調를 띨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자기 의사로 어쩔 수 없는, 풀 수 없는 indissoluble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속박하는 것이니까〉[64]라고 풀이한다.

우리가 제 I 장에서 〈이탈〉의 대상이 모두 〈숙명〉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이탈은 숙명화의 거부라는 점을 강조한 일을 상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 〈집착〉과의 대응관계까지 설명해 주려는 듯이 덧붙인다.

"자기 꿈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가한 속박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건 누가 앙드레보다 더 속박을 혐오한 사람이 있었던가? 결코 아무도 어디에도 없었다."

〈자기 꿈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가한 속박들〉—이것이 곧 전·후기를 통하여 변함없는 집착의 대상이다.

그런데 둘째 아들 맹쌍이 문제아였다. 하루 종일 나돌다가 10시에야 돌아오는가 하면, 필요한 물건을 슬쩍하는 도벽까지 발휘한다. 11살인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학교를 까먹고 방황하다가 밤중에 처마 밑의 배수관을 타고 2층 방으로 기어드는 판이다. 그런데 말로는 이 문제아 때문에 불안하여 집필에 지장을 받는가 하면, 불안감이 신경질적 발작의 지경에 이르러도 어쩔 줄을 몰라 속수무책이다. 밖에서는 그토록 용감한 행동가이자 날카로운 판단력과 결단성, 그리고 조직적 센스를 갖춘 그가, 자기 나이 어린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어쩔줄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라고 한 표현이 실감있게 증명된다.

더구나 이상한 일은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알랭은 말한다. 그 문제아를 고쳐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를 사랑할 것. 그것이 바로 앙드레가 그 아이에게 표현할 줄 모르고, 또 표현할 수 없던 것〉이라고. 〈상호감정의 동시 형성〉(필경 愛憎의 동시 폭발을 뜻하는 듯)과 〈괴로운 수치심〉에 그만 마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 맹호가 〈수치심〉으로! 결국 밖에서 행동할 때는 不死身 invulnérabilité의 자신감으로

64) ibid. pp. 50-1.

무장되던 그도, 가정 안에서의 혈육의 연줄에 묶이면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이미 상처를 입는 vulnérable 기현상이다. 심지어 〈누구나 다 고아가 되는 행운을 타고날 수는 없지〉하던 쥘 르나르의 「홍당무」의 말을 뒤집어 내뱉더라고—〈누구나 다 자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65]

여기서 상황과 사정은 전혀 다르지만 똑같이 자식때문에 손발이 묶여 늘 한탄하던 「인간조건」의 엠멜리크의 〈나도 애만 없다면…〉 하던 푸념이 절로 생각난다. 25년 전에 작품에서 한 인물이 몸부림치며 통감하던 그 심정을 그 자신이 겪게 된 것이다. 마침내 발뒤꿈치를 찔린 아킬레스 격이다.

그런데 그 자식 둘이 한꺼번에 횡사를 한 것이다. 〈운명〉이 손을 쓴 것일까? 그럼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마지막 사실들과 아울러 생각해 보자.

b) 어쩔 수 없는 孤立化의 自招 : 가장 큰 수수께끼에 부딪친다. 두 아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 유일한 애정의 연줄이 하나 남는다. 그것도 〈초자연의 신비〉로 맺어진 연줄이다. 스스로 꿈에 〈제 3의 아내〉라고 나타났던 계수 마들렌느와 그 아들. 먼저 간략히 소개했듯이 뛰어난 미녀에 툴루즈 연에학교의 피아노 교수를 지낸 전문적인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탁월한 재능은 후에 밝혀지리라. 알랭이 자기 친어머니에게 좀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치고 감안하더라도, 위의 2가지와 다음 몇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첫째, 말로에 대한 존경은 물론, 너무나 헌신적으로 떠받드는 아내다. 직문적인 피아니스트가 남편의 집필의 방해가 될까봐 (사실 말로는 참지 못했으리라.) 20년간 피아노에 손를 잠근 채 지냈다는 것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둘째로 항상 뒤에 숨으려는 듯한 소심·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이다. 父子간의 갈등을 옆에서 전전긍긍한 태도로 엿보면서도, 말로의 신경을 건드릴까봐 말 한마디 참견못하고 있다.

알랭이 그 회고록을 쓸 때도, 〈自意로 뒤에 숨어버림〉으로 하여, 남편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귀띔해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녀에 대한 말로의 태도에 관하여 알랭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할 뿐, 모친의 말은 한마디도 인용 못하고 있다. 필경 그녀만이 아는 수 많은 비밀이 뇌리에 싸여 있을 터이다. (프루스트에 대한 셀레스트의 경우처럼 죽기 전에 최후의 증언을 남긴 것인지?) 세째로 참을성이 대단하다. (20년간 피아노를 버린 점으로도 알 수 있지만, 곧 드러날 것임).

이만하면 서양에서는 보기 드문 현모양처이다. (침묵 한 가지 만으로도 알만하다.) 그런데 친 아들의 연줄이 일거에 끊긴 후부터 차츰 말로 부부간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아니 일방적으로 말로의 신경질·침묵·무력증 등으로 온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긴장이 조성된다. 사소한 일로, 혹은 상상으로 그려낸 앙심으로 부인을 질책하는가 하면, 노골적이며 난폭한 언동으로 증오감을 표시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식사중에(번번이 무언극같은 고

65) ibid. p. 197.

통스런 침묵으로 식사를 끝내던 것이 예사) 부인을 앞에 두고 아들 알랭에게, 〈사랑이란—네가 옆에 있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좋다. 증오란—네가 옆에 없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좋다.〉[66] 이런 거라고 내뱉는다.

부인은 처음엔 어리둥절하여 방어를 하다가, 차츰 어이 없고 화가 나서 그만 말로 앞에서는 〈금고〉처럼 꽉 잠겨버린 태도로 대한다. 그런데 그의 부당하고 해괴한 태도에 약하나마 해명의 빛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부인이 여름휴가 때 신세를 진 이탤리인 부부를 혼자 오페라에 초대하여 외출을 한다.—그것이 바로 4년 전 아들 형제가 횡사한 忌日 다음 날이다. 그런데 평소 자기 생일은 차츰 말하기 싫어하고(늙은 나이 때문에), 남의 생일을 알지 못하던 그가 새삼스레 4년 후의 忌日 다음 날 외출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들어 알랭은 추측한다.—아들 횡사에 대한, 아니 근원적으로 재혼에 대한, 죄책감.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다름 없이, 자기와 자기를 중심으로 집안이 전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부인을 상대로 원한으로 변하여 터져 나온 것이라고. 그러나 어째서 무엇을 그녀에게 원망하는가? 그토록 이성이 마비될 수 있겠는가? 아내의 모습, 그리고 최후의 가족의 연줄을 기어코 끊고야 말려는……아니 이것은 의지나 의사는 물론 아니고, 의식적인 것조차 아닐 것이다. 〈숙명〉의 실현이랄까……, 우리 말로, 뻔히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르고, 파탄을 향해 자제력 없이 끌려갈 때, 〈저도 임의로 못해서〉 그렇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말로는 분명히 이성·상식을 벗어난 짓을 연거푸 되풀이한다. 다음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전혀 집필이 불가능한 침체·무기력증에 사로잡히자(1965년 6월), 훌쩍 상선 〈캄보쟈〉號를 타고 동남아로 떠나버린다. 여기서 절로 떠오르는 또하나의 〈작품을 통한 운명의 예시〉가 있다.—「왕도의 길」의 페르캉과 사라의 동거생활의 결말—〈늙음〉과 가정에 갇힌 〈삶의 침체·부패〉에 대한 혐오. 점점 죄어드는 〈숙명〉化의 틀의 중압감. 페르캉과는 반대로 저 자신의 늙음과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사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부인이 멀리 떠난 남편에게 기착항구마다 보낸 안부 편지에 대하여, 회답은 상상할 수 없는 질책·힐난의 편지가 회수를 거듭할 수록 심하게 날아드는 것이다. 이건 정신이상이 아닌가? 아니 그럼에도 네루·周恩來·毛澤東들과의 잇달아 진행시킨 명석·심오한 대담을 보면, 그의 정신력은 여전할 뿐 아니라 아주 원숙기에 이르고 있다. 결과를 보면 결국 〈숙명〉의 실현이랄 밖에 없다.

귀국하자 대뜸 부인에게 나가라고 명한다. 이 기회에 알랭도 따로 숙소를 정하여, 〈드디어〉 말로는 그 대궐같은 집에 〈외톨〉로 남기에 이른다.

여기서 「왕도의 길」의 바넥그老人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의 부부생활의 말기는 그 완강한 老人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신기스러운 〈작품을 통한 예시〉

66) ibid. p. 187.